

“내란수괴 尹 구속, 헌정 법치·민생 회복의 시작”

민주 전북도당 “국가 사법체계 공격한 서부지법 소요·폭동 사태 엄정 대처를”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지난 19일 새벽 2시 50분경 서부지법 차은경 담장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소요·폭동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 전북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헌정, 법치,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공격한 서부지법 소요, 폭동 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정·법치·민생 파괴법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적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법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아직 정국은 혼란하고 상황은 엄중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저열한 선전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절차적으로 완성했지만, 망상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선동은 내란 동조자

들의 광적인 폭주를 초래했다.”며, “이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했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발작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해 40명 이상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5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소란, 폭력사태를 자행한 대상자를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서부지법 소요·폭력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과 사법을 부정한 윤석열 내란 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규정하고 특히, 윤석열 일당이 매번 청년을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군색한 처지를 타개하려는 사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정과 사법의 책임자에게 법치의 회복을 상징한 윤석열 구속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민주적 헌정질서와 법의 지배를 부정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심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

통령 구속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노정 한 불행한 역사로 기록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의 내란 계엄을 맨손으로 제압했고 엄동설한 속 아스팔트 거리에서 내란 일당의 단죄를 외치며 치열한 투쟁에 앞장섰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현행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국민의 투쟁과 헌신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구속은 헌정·법치·민생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시작으로 그 이름 아래 드리워진 음침하고 부패한 그늘을 걷어내, 그들이 파괴한 자유와 질서를 되찾아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의 소란, 폭동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둔 2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김경중 학교장과 환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설 명절 맞아 군부대·소방기관 위문

김관영 지사, 육군부사관학교 방문... 부지사 등은 모현 119안전센터 등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20~21일 육군부사관학교와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안보와 소방 안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양성의 중심으로 지역 안보를 굳건히 지켜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격려금을 전달하며 사기를 높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대비 태세와 굳건한 통합방위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군과 소방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 장병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익산 모현 119안전센터와 진안 119안전센터 등 5개 소방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동안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징계 및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은 ‘대한민국 물의 메카, 뜬봉샘 자연과 사랑을 잇는 생명의 원천’ 5분 발언을 통해 뜬봉샘을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했다.

또한,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명절을 맞아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주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아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기원했다.

최 의장은 이어 “2025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오전 10시 정읍과 고창 지역에서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민생 안정·지역경제 회복 의지 다짐

민주 전북도당, 정읍·고창서 설 맞이 민생안정 활동

고창 희망샘학교·정읍 샘고을시장 찾아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정읍과 고창 지역에서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활동은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직접 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으로 고창군에 위치한 희망샘학교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도의원, 군의원, 고창 지역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감장장 원장과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협의하여 추경 때 인력 증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으로 이동한 이원택 도당위원장,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은 샘고을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직접 상인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구매한 물품은 이후 방문한 정읍애육원에 전달되어 설 명절의 온정을 나누는 데 사용됐다.

정읍애육원에서는 서완중 원장과 실무자들을 만나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누고 복지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탄핵 정국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후계·청년농들 위한 신속 대책 마련 다행”

한종협, 농식품부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

연초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후계·청년 농업인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성명서가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홍식 상임대표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계·청년농 농민을 돕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후계·청년 농업인이 계획대로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재원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를 사전에 막고자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며 결국 증액이 불발돼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줄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정부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던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조치였으나 농지, 농업시설 매입 등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계·청년농이 후순위로 조정되며 논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최 상임대표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후 정부의 행보는 높게 평가할만하다. 실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후계·청년농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0일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설맞이 장보기 캠페인에서는 위촉된 소비심리사와 경기침체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지역 농산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에 앞장섰다.

박일 의장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해달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정신 되새겨

문승우 의장 등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20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군의 회생을 추모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2025년 새해에는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로 비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위로와 응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승식(정읍1)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정규(임실)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정읍2)·정종복



(전주3) 의원 등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참여 농민 위패가 모셔진 추모관에서 참배 후 황토현 전적에 세워진 농민군 동상 ‘불멸, 바람길’에 헌화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전시(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를 관람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0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백마여단 등 관내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이날 김영태 의장과 김한수 부의장은 시설을 꼼꼼히 둘러본 후, 추운 날씨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군 장병들과 환담하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는 데 대한 감사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